

상임위마다 대선개입 혈투…민생은 쏙 빠졌다

■ 박근혜 정부 첫 국감 뭘 남겼나

광주·전남 의원들 현안별 쟁점화·송곳 질의 ‘맹활약’

겉핥기·막말 국감 구태 여전…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19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일 사실상 끝났다. 이날 초 겸임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운영위·여성가족위 국감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20일간의 국감 일정이 이날로 일단락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모두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걸었지만 국기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좌우 이념 논쟁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면서 정치공방으로 흘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는 수박 겉핥기식 국감, 무더기 증인 출석과 호통치기, 막말 등 구태도 재연돼 여야 모두에서 국감 개선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성과 있다고 자평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동양그룹 사태 대책 추궁, 원전 및 수산물 안전 대책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실제 규명, 역사교과서 왜곡 지적, 공약파기 추궁, 원전비리 및 4대강 비리 추궁,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부각 등을 성과로 거론했다.

◇여야 곳곳에서 충돌=검찰·국방부·국가보훈처를 각각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는 이를 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다 한국부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을 개시하지도 못했다. 해당 기관 증인들은 하루종일 국감장에서 대기하다 발길을 돌렸다.

지난 31일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대선

개입 의혹 주제에 박승준 보훈처장이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라고 답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은 것은 물론 국감이 부분 파행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활약=정무위 강기정, 기재위 이용섭·이언주, 교문위 박해자, 외통위 박주선, 능해수위 김영록 의원 등은 국감 기간 내내 통찰력 있는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소속 기관과 동료 의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다만, 능해수위와 국토위에 의원들이 물려 있는 반면 안행위·복지위·환경위 등 주요 상임위에는 단 한 명의 지역 의원이 없어 관련 지역 현안을 쟁기지 못하는 등 아쉬움도 있었다.

◇여야, 개선 필요성 제기=민주당 전병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말로만 얘기하고 입으로만 와치던 상시국감제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뤄내는 성과를 올리자고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다음달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시 국감’뿐 아니라 꾸준히 제기돼 온 상임위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정상화와 대정부질문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병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13 국감 종합평가 및 예결위 운영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포스트국감’서 예산·입법전쟁 예고

오늘부터 입법결산특위 정책질의…대선개입 공방도

민주 “5인방” 퇴진해야” 새누리 “시급안 법안 처리”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여야는 당장 4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정책질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입법과 예산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 공세를 펴부를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주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을 상대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과 오는 14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국감에서도 양보 없는 싸움이 예상된다.

국정원 국감에서는 국정원 개혁 방향과 개혁안의 심의 방식 및 기구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애초 5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감안, 민주당의 연기 요구로 14일로 미뤄졌다.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서는 ‘검찰 장악과 PK(부산·경남) 편중 인사’를 놓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상대로 야당의 과상공세가 예상된다.

오는 11~12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

보자,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대치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정국을 앞두고 여야는 3일 설전을 주고받으며 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 전병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를 대선공약·서민경제·민주주의 등을 과파한 ‘3파 정권’이라면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승준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장을 ‘5인방’

으로 지칭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

다. 또 권력기관 개혁, 부자감세 철회,

폐기공약 복원을 통한 약속실천 등을 넘은 정기국회의 3대 운영기조로 제시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하면 대통령 사과와 장관 등의 사퇴를 주장한다. 이런 고집병을 제발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감이 끝나고 곧 법안과 예산심사가 시작되는데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시급한 법안과 민생 관련 예산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강기정·이용섭·김광진 등 34명

경실련, 국감 우수 의원 선정

이용섭 의원 5년 연속

감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과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용섭 의원은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국감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국가채무 문제와 관련해 실체적 규모를 밝히고 편법적 운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은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지금까지 경실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5년 연속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를 상임위별로 모니터링한 결과, 민주당 28명, 새누리당과 정의당 각 3명씩 모두 34명의 국회의원을 국감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안전행정부 등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대선 개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국

감을 안았다.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이어 군사비와 사령부 역시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을 최초로 제기하는 등 다양한 이슈 발굴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한편, 경실련은 국감에서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박승준 보훈처장, 홍준표 경남지사,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이사 회장 등 4명을 ‘불성실 피감기관장’으로 선정했다. /최권일기자 cki@

독일 체류 마치고 귀국한 김황식 前총리

“지방선거 출마 생각해본 바 없다”



생각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거듭 부인했다.

야당의 최근 장외투쟁에 대해서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현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묻는 질문에도 “국민의 힘을 집결시키려는 노력들이 정치권에서 함께 행해졌으면 한다”며 원칙적인 내용으로 답했다.

독일 체류에 대해서는 “품격있는 정치문화와 잘 짜여진 복지 시스템 등은 독일에서 참고하고 배울 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접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 채권매각: 상담시 협의

월출동 공장

대지: 광주시소유 건물: 2353㎡

감정가격: 21억6천 채권매각: 상담시 협의

금남로4가 빌딩

대지: 800㎡ 건물: 4834㎡

감정가격: 69억3천 채권매각: 상담시 협의

쌍암동 나이트클럽

대지: 3238㎡ 건물: 3090㎡

감정가격: 89억7천 채권매각: 상담시 협의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증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굿모닝타운 분양 사무실)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총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 777㎡(235) 공시지가 17억7천만 원 오피스텔, 상가개발작업 9억6천
- 협평군 영월군에서는 2층 주거지 320평 건평 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층 주거지 50평 주거지에는 소형 APT나 다 세대작업 대출4억 교환도 가능 10억5천
- 원룸·다세대작업지 북동상업지 64평 매도 1억6천 원룸·다세대작업지 93평5천
- 조선대학교 앞 동평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 등 건물4동 대지 321평 건물592평 고시원 176실 전 세5천만원 월 3500만원 원수입 예상. 대출액 1억 원대수익생활에 적합. 소유권 이전은 법인이전 가능함 17억
- 공장부지 나주시 평평을 비행장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94평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 가능. 투자에 적합 7억4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오피스텔, 증도에 슬로시티와 웰도라도 가는 길. 비단가로 보이는 별장용 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로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 가능. 가격은 1억2900만원과 1억8500. 원도로도 가능하며 조건은 조정함.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 167㎡(50) 전 세 5천에 월200선 임대. 분위기 있는 편성도 적합
- 임대·매매. 쌍암동에 신축증인 기도건설의 기도생활주택 2층 건물 허밀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제. 임주는 11월 말경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 투자자는 여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서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생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평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사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 241㎡ 건평 307㎡ 김정기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 1760㎡ 건평 2821㎡ 김정기4억6천 최저가26억
- ▷ 니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 545㎡ 건평 2309㎡ 김정기13억7천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 763㎡ 건평 137㎡ 김정기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 149㎡ 건평 161㎡ 김정기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 319㎡ 건평 297㎡ 김정기13억7천 최저가7억

공장 및 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